

# 팀 코리아, 4.2조 규모 美 FLNG 해양플랜트 건설사업 수주

해수부·삼성중공업 등 민관 합작  
국내 조선소 건조 후 美 현지 설치  
중소·중견기업 연쇄 수주 기대

정부가 민간이 합작해, 미국 남부에서 발주된 해양플랜트 사업권을 따냈다. 28억 달러(4조2000억 원) 상당의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수주다.

해양수산부는 이른바 '팀 코리아'가 28억 달러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해양플랜트 1호기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민간기업(삼성중공업)이 힘을 한데 모아 추진·이룩한 쾌거다. FLNG란 천연가스 액화설비를 탑재한 부유식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후 현지에 설치하는데,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액화·저장·하역까지 수행한다.

사업을 주도하는 블랙록(세계 최대 글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FLNG 생산설비의 한 모델

/뉴시스

로벌 자산운용사) 펀드에 한국해양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녹색펀드, 해양진흥공사가 투자했다. 이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금융 구조화에 지원함으로써 국내 민간기업의 EPC(설계·조달·건설) 수주를 지원했다.

삼성중공업은 전세계 FLNG 발주 10기 가운데 6기(3기 가동 중, 3기 건조 중)를 수주했다. 이번 추가 계약으로 세계 FLNG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안 약 74km 해역에서 연간 440만 톤(t) 규모의 LNG를 생산하는 게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총 사업비는 48억 달러로 추산된다. 사업기간은 건설 5년에 운영 25년이다.

투자 금액은 한국해양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7000만 달러, 녹색펀드 3000만 달러, 해양진흥공사 5000만 달러이다.

이번 사업에는 연료 연소 후 배기가스

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촉매를 통해 질소와 물로 환원하여 배출을 저감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 적용된다. 또 버려진 폐열을 회수 후 스팀과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재사용을 극대화하는 배열회수보일러 등 우리 기업의 친환경 설계 기술도 전격 선보이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기업, 3개 부처, 2개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향후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프로젝트는 금융, 시공, 운영 전 과정을 포함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라며 "해외 건설이 전통적인 수주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형 복합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제작, 건조, 조립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연쇄적 수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해외 주요 인

프라 사업 참여가 건설사업 수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인프라 확보를 통한 수입처 다변화, 운송망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동반자가 되어 하나의 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상을 통해 구축된 글로벌 디벨로퍼와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미래 협업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해외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해진공 블루본드, 지속가능 금융 경쟁력 입증

디에셋 등 금융매체 어워즈 수상  
해양산업 탈탄소화 노력 인정받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행한 블루본드가 해운 탄소감축 부문에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블루본드란 바다 환경을 보호하거나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을 위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4일 공시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 블루본드는 해외 유수 금융매체가 선정한 수상 기관 명단에 최근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

해진공의 블루본드는 올해 아시아 최고 권위 금융전문지 '디에셋'이 주관하는 '트리플 에이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 어워즈 2026'에서 '최우수 블루본드 부문'을 수상했다. 또 영국 환경·금융 전문매체인 '인바이런멘탈 파이낸스'가 주관한 '서스테이너블 데트 어워즈 2026'에서도 '올해의 녹색채권'에 뽑히는 등 세계 무대에서 쾌거를 거뒀다.

디에셋(The Asset)은 1999년에 설립된 글로벌 금융전문 미디어그룹이다. 트리플 에이 어워즈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달 28일 서울사무소에 주 간사단을 초청해 블루본드 발행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병길(왼쪽 네 번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과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 주간사 대표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

통해 각 분야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 수여하고 있다. 인바이런멘탈 파이낸스(Environmental Finance)는 1999년 영국에서 설립됐으며, 지속가능금융 분야의 세계적인 환경·금융 전문지이다.

인바이런멘탈 파이낸스는 해진공 블루본드 발행에 대해 "탄소 감축이 어려운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자본시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훌륭하게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해진공은 이러한 국제적인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발행 글로벌 채권 중 역대 최저 금리 수준으로 3억 달러 규

모의 블루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재확인한 것이다.

글로벌 우량 발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성과를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다. 공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사무소에 주 간사단을 초청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블루본드 발행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대한민국 해양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규제라는 파고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해양 금융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근로복지공, 이주노동자 산재 안전망 강화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자 간담회

이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110만 명을 돌파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재보상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서울에서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주노동자 산재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산재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산재보상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25년 5월 기준 110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업무상 재해 승인 건수 역시 2020년 7778건에서 2025년 1만 215건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호와 권리 구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주노동자가 언어 장벽 없이 산재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24개 언어로 된 교육영상과 17개 언어 안내문을 제공 중이며, 국민서비스 챗봇을 활용한 13개 언어 상담서비스와 베트남어 전담 상담사 운영 등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저소득 노동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등 다양한 노동복지사업에서도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주노동자도 우리 산업현장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와 위험 앞에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공단은 산재보상은 물론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까지 함께 살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산재보상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무보, 700억 규모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중소 조선사·기자재업계 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최근 국내 소형 조선사의 수주 지원을 위해 약 700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했다고 4일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선주에게 선수금을 돌려주겠다고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로, RG

발급이 막히면 조선사는 수주 계약 자체를 맺을 수 없다.

이번 지원은 RG 한도 부족으로 수주 애로를 겪는 중소 조선사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정부와 무보가 특례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을 소형 조선사까지 확대한 결과로, 업계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생산적 금융'의 사례로 꼽힌다.

실질적인 지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어나세는 금융권의 RG 발급 제한으로 신규 수주에 난항을 겪었으

나, 무보의 두 차례에 걸친 46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선박을 건조 중이다.

또 무보는 선박 기자재 전문무역상사 HJ인터내셔널에도 45만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AP-Bond)을 발급해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원하는 등 조선업 공급망 전반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소형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은 국내 조선업 공급망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핵심"이라며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에 발맞춰 RG 특례지원 등 무역보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마사회, 말산업 분야 中企 해외진출 지원

12일까지 사업참여 기업 모집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개시한다.

마사회는 '2026년 코트라 협업 말산업 분야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한은 이달 12일이다.

Kotra(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자체적인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시장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말산업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은 Kotra의 전문 역량이

집중된 '수출24 글로벌대행(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기업당 최대 100만 원(VAT 포함) 한도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가능한 서비스는 ▲잠재 바이어 발굴지원 ▲취급기업 정보조사 ▲항목별 시장조사 ▲바이어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수출 계약 체결을 돕는 16개의 전문 조사·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글로벌 사우스 중심 수출지원 강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 기조와 연계한다. 이에, 공고문에 첨부된 16개 무역관 지정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설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